



[라이프] 이승준의 오리온號 출범 R&D·글로벌 공략 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 감염속도 델타의 3배... 팬데믹 종식 향한 마지막 싸움되나

## 오미크론 긴급진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습격이 시작됐다. 국내에선 지난 해 12월1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목사 부부가 처음 오미크론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5030 명의 누적 감염자가 나타났다. 전체 검출률은 26.7%로 직전주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였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말께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며, 델타를 밀어내고 새로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력은 폭발적으로 높고, 증상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의 본격 확산이 시작되면 국내에서도 일일 신규 확진자 2~3만명씩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격리 기간은 줄어들고,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 K-방역 방식과 의료 대응 체계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은지 3년,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다행히도 오미크론은 마지막 전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싸움이 끝나면 인류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 오미크론의 감염은 훨씬 빠르다.

“델타변이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일에 감염자가 두 배씩 증가한다는 일관된 증거가 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2일만에 1000명을 넘겼다. 델타 변이가 1000명을 감염시키는데 78일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전파 속도는 2배 이상 빠르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2.05라고 발표했다. 확진자 1명이 2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에는 어떤 강력한 봉쇄 조치도 소용이 없었다. 델타 변이를 다루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 -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인 것은 맞나.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주로 상기도(기도의 상부)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때문에 하기도(기도의 하부)를 침범하지 않아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조사한 결과 델타 변이 감염자 가운데 입원 환자가 14%인 반면, 오미크론은 5%로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도 오미크론은 4일로, 델타(8일)의 절반이며 사망자도 오미크론이 델타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초기 오미크론 감염 환자 40명의 임상 증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52.5%인 21명이 경증이었으며 나머지 47.5%는 무증상이었다. 폐렴 의심 사례는 6건에 그쳤고, 모두 경미했다.”

### - 그럼에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입원 위험이 낮다고 오미크론을 감기처럼 ‘순한’ 바이러스로 취급돼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기와 독감은 오미크론만큼 전염력이 크지 않다.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보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넘쳐 다른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특히 경증과 무증상자들은 그만큼 감염을 인식하지 못해 오미크론을 전파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오미크론은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고위험군의 피해를 막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 - 기존 백신은 소용이 없는건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는 덜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충분하다.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감염에 취약해지



지난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임상연구 센터장. /손진영기자 son@

### 오미크론, 이번 주말 우세종 될 것 하기도 침범하지 않아 증상 경미 조기진단으로 위험군 피해 막아야

### 백신, 중증·사망예방 효과 충분 3차 접종시 중화항체 100배 증가 자가진단 확대 등 새 대응전략 필요

### 오미크론 가파른 확산 후 급감 추세 2개월 내 팬데믹 종식 전망도 엔데믹으로 남을 가능성 높아

기 때문에 3차 접종은 하는 것이 안전하다. 3차 접종을 마치면 나이와 관계 없이 중화항체 값이 100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추가 접종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WHO와 유럽의약품청(EMA)에서 같은 백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 접종하는 것이 면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4차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3차 백신까지는 맞을 것을 권하고 있다. 화이자 3월 오미크론 변이주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내 언제 공급이 될지도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선 3차 백신이 유일한 대응 방안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검사-추적-치료(3T)로 이어지던 기존 방역 체계를 대폭 수정,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고령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양성인 경우라면 연령과 상관 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경증 환자 폭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를 강화하고, 호흡기 클리닉,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오미크론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스스로 검사를 통해 조기 격리와 치료를 해야 전파와 위중증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제 먹는 치료제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나 동네병원 진료 만으로도 충분히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음압 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체계는 과하며, 오미크론을 감당할 수도 없다. 중증 환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 -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나.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가 코와 목에서 활성화 되기 때문에 자가검사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발현 후 5일까지 바이러스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기간 신속항원 검사를 1~3일 간격으로 두 번 한다면 PCR 검사와 비슷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피해를 줄려면 개인이 집에 자가진단 키트를 상비적으로 갖추고 자주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치료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나.

“화이자 경구 치료제 팩스로비드 효과는 뛰어나다. 이스라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경구 치료제 팩스로비드를 복용한 확진자 가운데 60%는 하루만에 증상이 호전됐고, 92%가 3일만에 증세가 나아졌다. 국내에도 확진자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팩스로비드’도 충분한 물량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기존 치료제를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 항체 치료제(렉키로나)는 오미크론에 효과가 떨어



화이자가 개발한 오미크론 경구용 치료제 ‘팩스로비드’

어지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는 렉키로나를, 오미크론 경증 환자에는 렉데시비르를 투여해야 한다. 팩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고혈압, 당뇨 환자 역시 렉데시비르로 대응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 희망도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음 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이 다음 달 정점을 찍고 이후 가파르게 감소해 2개월 안에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 오미크론의 유행 기간은 2개월로 보는 것이 맞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세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거꾸로 세운 V자 모양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과 미국, 영국도 확진자가 한달간 급격히 늘고 정체를 거친 후 급감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은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7만여명으로, 지난 4일 역대 최대치인 21만8000명을 기록한지 10여일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미국 역시 지난 10일 13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4일만에 87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현상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세가 가벼운 오미크론 특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 오미크론을 끝으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나.

“적은 확률로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완전히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팬데믹의 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한 종식으로 보긴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엔데믹(토착병)으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엔데믹은 팬데믹과는 다르게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뜻한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같은 방역조치 없이 일상 회복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느림의 미학’ 유희관, 101승 남기고 은퇴 /사진 뉴스스  
▲ 프로농구 선수 애장품 경매수익금 1천만원, 승일희망재단에 기부

▲ ‘올림픽 출전 불발’ 심석희 측 “항고 의미 없어...결과 아쉽다”  
▲ 국기원, 16년 만에 ‘태권도 교본’ 개정판 발간



▲ ‘새해 첫 월드컵’ 펜싱 男 사브르 단체전 우승·女 준우승 /사진 뉴스스  
▲ 3년 만에 열리는 V리그 올스타전... 23일 광주 개최